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의 장”

GIST 신소재공학과, 전국 대학생 대상 제19회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

- 전국 대학생 35개 팀 참가, GIST·고려대 등 총 8개 팀 수상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통해 이공계 대학생 연구 역량 및 창의성 제고



▲ GIST에서 열린 제19회 신소재공학과 과학기술 경진대회 종료 후 참가자와 수상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신소재공학과(학과장 이주형)가 ‘제19회 GIST 신소재공학과 과학기술 경진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소재공학과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신소재공학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기회를 제공해 이공계 대학생들의 연구 역량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8월 4일(월)부터 9월 12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35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GIST 4팀, 고려대학교 2팀, 건국대학교 1팀, 한국항공대학교 1팀 등 총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지난 9월 26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GIST 오룡관에서 열렸다.

본선 발표에서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발표력, 질의응답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최우수상(상금 100만 원)**은 GIST 신소재공학과 김서하·생명과학과 김소진 학생이 수상했다. 이들은 '종양 미세환경(TME) 감응형 ICI-chemo logic 구현을 위한 OECT 기반 페루프 약물 전달 플랫폼'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 **우수상(50만 원)**은 GIST 신소재공학과 안현주·남경민 학생이 '빛으로 봉합하는 비침습적 DNA 하이드로젤 상처 봉합 패치'를 주제로 발표해 차지했다. ▲ **장려상(30만 원)**은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류현서·이다윤 학생이 'HA-3-알콕시티오펜 결합을 통한 고전도·고생체적합 전극 소재 개발'을, 한국항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진영·정용훈 학생이 'DLTS(Deep Level Transient Spectroscopy)'를 주제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상(20만 원)은 ▲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박시원·이수연 학생이 'swing-arm 다중효소반응을 활용한 CO₂RR 시스템: HER의 고부가가치화', ▲ GIST 신소재공학과 박민수 학생이 '수계 아연 금속전지에서 무기물-풍부 SEI층 형성을 위한 흡착 매개 음이온 농축 전략', ▲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 조성빈 학생이 '레이저 어닐링을 통한 저온 강유전체 박막 형성 가능성 탐구', ▲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정유라·신소재공학과 함유경 학생이 '다공성 구조를 도입한 2차원 소재 기반 산화물 멤리스터'를 주제로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서하·김소진 학생은 "신소재공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을 통해 차세대 항암 치료의 가능성을 탐구한 시도가 높게 평가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융합 연구를 통해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주형 학과장은 "매년 신소재공학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창의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연구를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신소재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